



나의 여행 일기장 : 태국 편

영남대학교
송지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야기한다. 삶은 사랑 아니면 여행이라고.
나는 이 말에 동의 할 수 없었다. 삶은 사랑이며 여행이라고 여겼기에.

지금까지의 모든 나의 여행은 도망이었고 회피였다. 수험생 신분으로부터의 도망, 이별의 슬픔을 외면하기 위한 방법, 반복 되는 생활에서의 회피까지. 언젠가 부터 힘든 일을 직면하거나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오면 스카이스캐너를 뒤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다. 그렇게 나의 삶에 여행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



이전까지는 여러 도시를 오가는 배낭여행을 주로 다녀서 주위 사람들로 부터 여행 질문을 많이 받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어디가 제일 좋았냐는 것이다. 그 사람들에게 나는 질문으로 답하곤 했다.

“어떤 면에서?”

여러 도시와 나라들을 다녔기에 다양한 이유로 좋았고, 그렇기에 어느 하나 쉽게 고를 수 없었다. 웅장한 자연을 가진 곳도 있고, 맛있는 음식이 기억 남는 곳도 있었기에. 마치 모든 자식을 차별하고 싶지 않은 부모의 마음처럼 말이다.

하지만 치앙마이를 마주한 후로 이제는 고민 않고 대답 할 수 있다. **내가 걸어왔던 수많은 길 중에 단연코 최고인 곳은 치앙마이니까.** 저렴한 물가와 낯설지 않는 문화, 복잡하지 않은 잔잔한 도시 분위기,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들이 항상 나를 그 곳으로 이끌었다.

처음 치앙마이를 갔을 땐 동생과 함께 동남아 일주를 하는 중이었다. 대부분 발길 닿는 대로 계획 없이 다니지만, 저렴한 비행기 표를 사기 위해 대략적인 일정을 짜는데 인터넷에서 치앙마이는 너무 조용한 동네라 2박 3일이면 충분하다는 글들을 많이 접했다. 그래서 3일의 시간을 보내려했는데 현실은 달랐다.

막상 도착해보니 치앙마이는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전혀 지겹지 않았다. 이상형을 만난 것처럼 취향에 딱 맞는 도시였고, 힘들고 피곤한 여정 속에서 마주했지만 가공되지 않은 원석을 발견한 듯 가슴 벅찬 기분이었다. 어떤 감정이든 잘 드러내지 않는 동생도 “누나, 왜 여기는 이렇게 짧게 있어?” 라고 아쉬움을 표현 할 만큼 모든 게 완벽했다.

너무 짧게 머물렀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만큼 나에게 강렬했던 도시였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이후로 나의 모든 여행에서 치앙마이는 빠지지 않았다. 2017년 겨울, 베트남 일주를 떠나기 전, 치앙마이에서 2주의 시간을 보냈고, 그 다음 해엔 치앙마이에서 한 달 동안 생활을 했으니 말이다.

그 많은 치앙마이 중 나의 두 번째 치앙마이, 그 소중한 시간들에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을 초대해 보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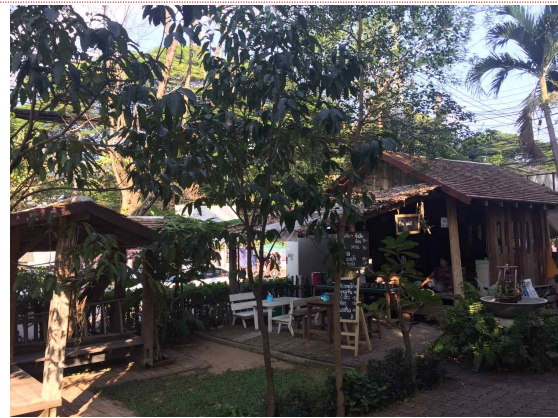
치앙마이에서의 시간들은 한국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하늘엔 이름 모를 새가 지저귀지고, 비행기가 부지런히 움직이는 평범한 소리에 아침을 맞이한다. 다른 이들에게는 특별한 소리일지 모르나, 원래 공항 근처에 사는 나로서는 매우 평범한 아침이었다. 고양이 세수를 하고, 머리를 질끈 묶은 후 편한 옷차림으로 집을 나선다. 책 한 권과 일기장, 아이패드와 함께.



이른 아침, 집 앞은 아침 시장으로 북적거린다. 간편하게 먹을 수 있게 자른 과일을 파는 어린 소녀, 쌀쌀한 아침을 따뜻하게 데워 줄 쌀국수를 파는 할머니까지. 그 중 엄청난 냄새로 사람들의 발걸음을 이끄는 가게가 있다. 나의 아침을 주로 여기서 해결하곤 하는데, 메뉴는 150원짜리 삼겹살꼬치와 300원짜리 찰밥. 무뽕이라 불리는 삼겹살 꼬치는 삼겹살을 얇게 저며서 간장 소스를 발라 숯불에 구워 파는 음식인데... 이 냄새를 맡고도 그냥 지나칠 사람은 없다고 본다. 무뽕 몇 개와 찰밥 하나를 먹으며 단골 카페로 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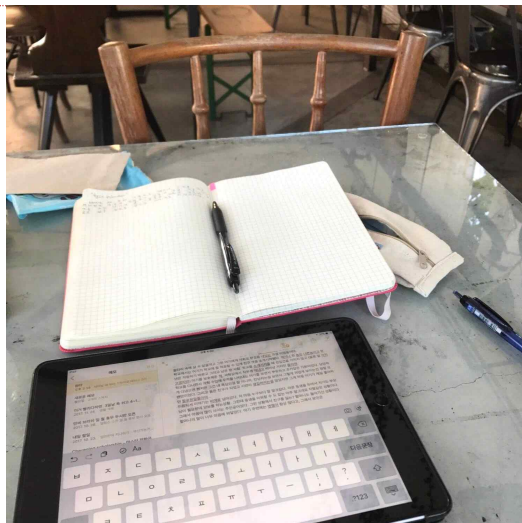
매일 아침, 출근 도장을 찍는 이 카페는 건물이 아니다. 크고 작은 나무들에 둘러싸여 있는 간이 카페인데 나무 책상과 의자, 더위를 식혀줄 선풍기들이 여기저기 놓여있다. 그 자리에 있던 나무들을 그대로 두고 남은 공간을 활용해 디자인한 것 같았다. 태국에는 특히 이런 느낌의 가게들이 많은데,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장소를 만들어 나가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이 매 번 인상적이다.



커피 한 잔을 시켜 제일 좋아하는 자리에 앉아 주변을 구경했다. 과제를 하는 학생들, 노래와 기타를 연습하는 학생들,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며 업무를 보는 직장인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작은 공간에 존재한다.

여행이 좋은 건 시간을 온전히 나에게 쓸 수 있다는 점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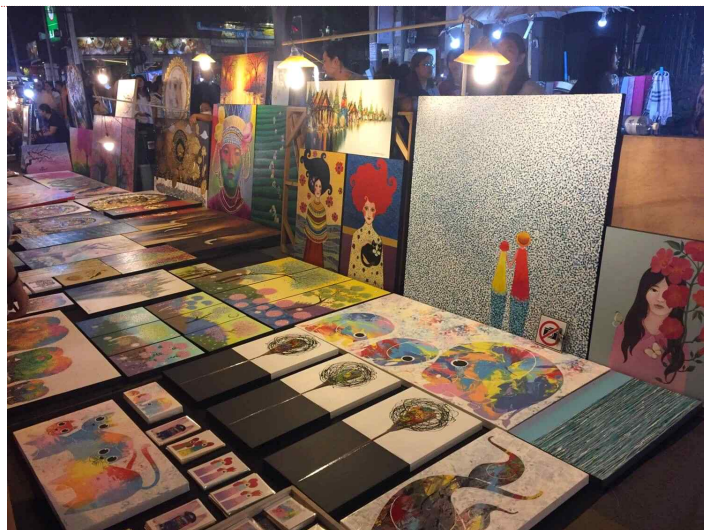
“이방인임을 숨기고 싶어서 일까?, 아님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서일까?” 나는 밀린 일기를 쓰기도 하고, 읽고 싶었던 책을 읽으며 그들처럼 바빠졌다. 어떤 것도 하기 싫을 땐 영화를 보기도 했다. 하고 싶은 것을 각자의 속도에 맞춰서 행동하니, 스트레스는 이 곳과 어울리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해야 할 일들이 가득해 상대적으로 나를 위한 시간이 적은데, 여기선 24시간이 온전히 나의 것이다. 이러니 내가 여행 중독이라는 불치병에서 헤어 나오질 못하지.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끝나고 나면 배가 고파온다. 오늘은 일요일이라 올드시티 전체가 야시장으로 변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 다른 말로는 선데이마켓, 워킹스트리트 라고도 불린다. 올드시티 내 메인 도로에 차의 통행을 막고, 그 곳에 좌판들이 들어서며, 시장이 된다. 주로 오토바이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태국인들은 평소에 걸어 다닐 일이 없는데, 이곳은 걸어 다니는 공간, 즉 워킹스트리트가 된다. 우리에게 이 단어와 야시장이 전혀 접점이 없지만, 이렇게 그들의 생활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 좀 더 깊이 그들을 이해할 수 있다.



선데이 마켓엔 없는 것 빼고 다 있다. 기념품으로 사갈만한 과일비누와 무드 등, 코끼리 수가 놓아진 작은 파우치들까지 여행지 같은 물건들도 있지만, 고산족들이 만든 수공예품, 스님들이 만든 팔찌나 바느질제품같이 태국 느낌의 물건들도 있고, 트렌디한 옷, 귀걸이나 목걸이처럼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아기자기한 물건들도 많이 팔고 있다. 특히, 치앙마이에는 예술가의 도시라고 불릴 만큼 예술가들이 많다. 멋진 그림을 그려 판매하는 화가, 수제 천 가방으로 유명한 Playworks, 아기자기한 장신구까지 다양한 것들을 판매하고 있다.



물론 크리스마스의 명동이 떠오를 만큼 몰린 인파는 각자 다른 모습을 보이니 사람 구경하는 재미도 있다. 코코넛 아이스크림을 파는 아주머니, 각지에서 온 단체 관광객들, 길가에 누워서 발 마사지를 받는 외국인들 까지 다양하게 있다.



먹거리도 빠질 수 없다. 내가 아침식사로 자주 먹는 무빵이나 태국식 오믈렛, 팟타이처럼 태국적인 음식들도 판매하고 있고, 스시나 만두, 수제 햄버거와 감자튀김같이 이국적인 음식들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전 세계를 한 번에 접할 수 있어서 매주 구경을 가도 매번 신기하고 즐겁다. 900원이면 과일을 가득 넣어 생과일주스를 만들어 주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인기 많은 망고주스와 수박주스를 곁들이면 저녁 식사는 매우 풍요로워진다. 가게에서 저녁을 해결 할 수도 있지만 걸어 다니며 다양하게 먹는 게 참 매력 있는 선데이 마켓인 것 같다.



먹으며 주위를 둘러보면 한국과 비슷한 유행인 옷들도 팔고 있고 해외여행 나오면 꼭 챙겨 입는 하늘하늘한 린넨 원피스도 많이 팔고 있다. 아기자기한 귀걸이와 팔찌같은 장신구들도 많은데 정말 트렌디하고 가격도 매우 저렴해서 항상 나의 발걸음을 붙잡는 장소들이 나온다. 여러 물건들 중에 사이사이 숨어있는 내 취향들을 찾아내는 내 모습이 마치 보물찾기 하는 어린 아이 같다. 몇 천원이면 제법 근사한 제품들을 살 수 있으니, 터져나가는 나의 배낭을 못 본 채 하고 쇼퍼홀릭이 된다.



다리가 아픈 줄도 모르고 열심히 선데이 마켓을 돌아다니다보면 어느새 집에 갈 시간이 다가온다. 돌아가기 전, 한적한 길가와 어울리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마사지 장인 분들에게 발을 맡기고 일요일의 분위기에 취해본다.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하면 내일의 여행에도 전혀 지장을 주지 않으니, 내가 꼭 챙기는 일요일 마지막 코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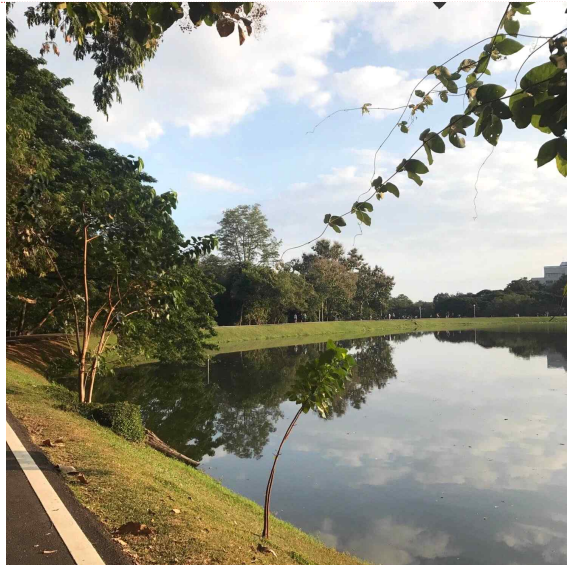
그렇게 평범한 일주일을 지내면 어느새 토요일이다. 토요일의 치앙마이는 평소와 다르게 새벽부터 분주하다. 치앙마이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아침마다 '나나 정글'이라는 숲 속 시장이 열린다. 프랑스인이 직접 빵을 만들어 판매하는 작은 숲속 베이커리였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유명해지다보니 어느새 아침시장으로 자리 잡았다.



아침 일찍 도착해야 이른 번호표를 받을 수 있다. 조금만 늦어지면 대기 순서가 300번이 넘어가니 알람 열 개는 필수이다. 하지만 늦게 도착해도 그렇게 지겹지 않다. 싱싱한 야채와 과일을 파는 상점도 있고, 수제 요거트를 파는 가게, 각 종 핑거 푸드도 판매하고 있다. 유기농 제품들을 숲속에서 팔고 있으니 가만히만 있어도 힐링 되는 느낌이다. 그 중 가장 시선을 끄는 가게는 생과일주스 가게이다. 자전거 페달을 돌려 그 전기로 믹서기를 돌리는 방식인데, 숲 속 시장의 테마와 제일 잘 어울리는 가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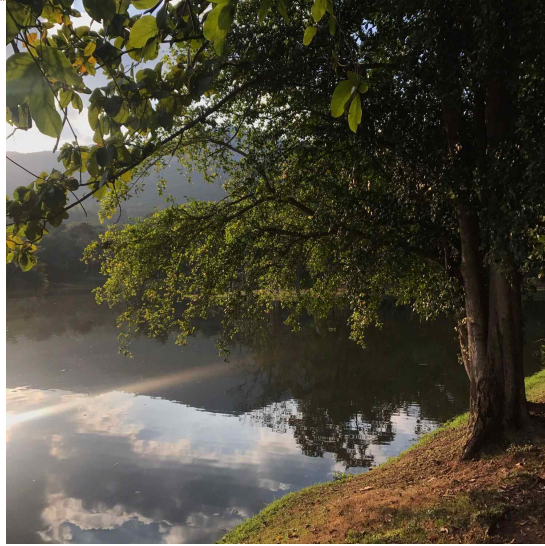


이렇게 구경을 하다보면 금방 나의 순서이다. 제일 좋아하는 크루아상과 사워도우, 그리고 바나나머핀을 사고 계산대를 지나 베이커리 뒤편으로 가면 작은 쉼터가 형성되어있다. 방금 나온 빵들을 맛 좋을 때 즐기는 사람들이 가득한데, 그 곳에는 무료 음료가 있어 빵과 함께 상쾌한 아침을 즐기라는 주인장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진다. 고소한 냄새를 풍기며 내려진 드립커피를 한잔 씩 나눠준다. 우유도 함께 준비되어있어 아이들도 같이 즐길 수 있다. 마치 커피브레이크처럼 커피 한잔과 빵을 먹으며 주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다. 네덜란드에서 온 노부부, 나처럼 독일에서 여행 온 줄리, 미국에서 치앙마이로 넘어와 살고 있는 디지털 노마드인 잭까지 모두가 친구가 된다. 서로 치앙마이의 맛집을 알려주고 구경할 장소들을 알려주느라 시간가는 줄 모르는 토요일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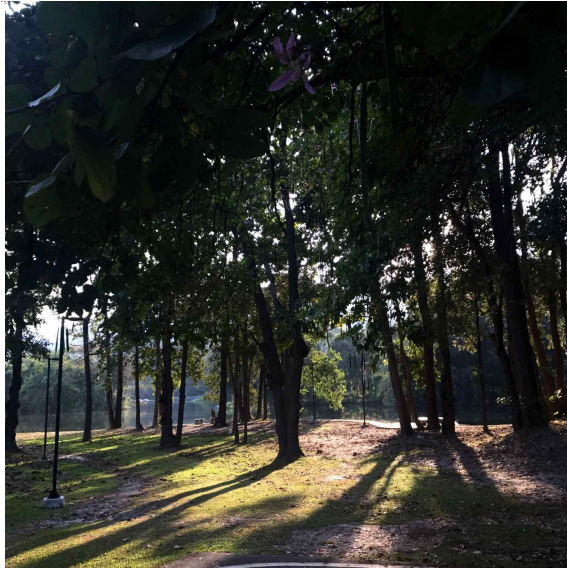
나나정글에서 돌아와 낮잠을 푹 자고 늦은 오후에 일어나 아침에 만난 줄리가 추천해준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밖으로 나선다. 자주 가는 치앙마이 대학교 호수를 산책할 때 늘 마주치는 카페인데, 새로운 도전이 하기 싫어 매 번 지나치는 그 카페에 아주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판다고 하더라.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더라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게 용감해질 필요가 있는 거 같다. 줄리의 추천이 없었으면 좋은 가게를 놓칠 뻔 했으니 말이다.

아이스크림 가게가 위치한 곳은 치앙마이 대학교 내에 위치한 인공 호수 '양깨우'인데, 태국인들에게 웨딩촬영으로도 상당히 인기가 많은 곳이다. 나 역시 이 공간을 매우 좋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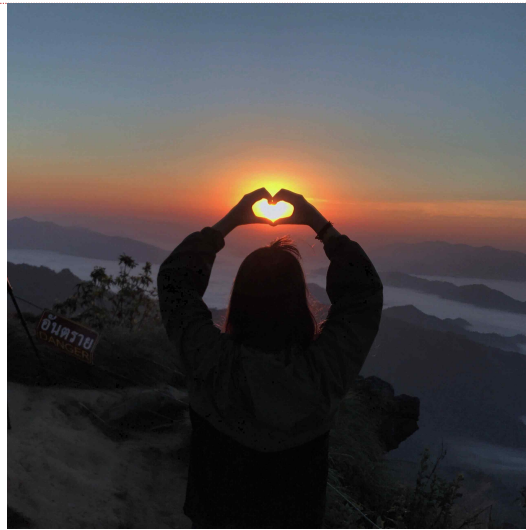
도시 한복판에서 마주한 자연은 마치 오아시스 같은 느낌이랄까?

호수에 가기 위해서는 정문에서 투어 셔틀버스를 이용해야 한다. 셔틀버스를 타고 도착하면 그림 같은 산책로가 나타난다. 천천히 사색하며 걷기 좋은 풍경과 적당한 날씨가 모두를 기다리고 있다. 걷다 보면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웨딩 사진을 찍고 있고, 데이트를 하는 연인들도 있다. 이 호수는 미래를 약속하며 반지를 던졌을 때 행복한 미래가 이루어진다는 미신도 있는데 언젠가 연인과 오게 되면 도전해 봐야겠다.



걷다 보면 이런 공터가 나온다. 해리포터가 연상되는 나무들과 그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까지. 도시락을 싸와 누군가와 나눠먹고, 여유를 즐기며 책 읽기에 완벽한 곳 같다. 모두에게 소풍 같은 하루를 선물해 줄 수 있는 그런 곳이다.

사실 정문에 있는 셔틀버스를 이용에 대한 웃지 못 할 에피소드가 있다. 어느 나라를 가도 중국 여행객들은 많지만, 유명한 영화, 드라마를 치앙마이에서 촬영해 특히나 많다. 그 중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대학교였는데, 질서 유지가 되지 않고. 학교 내에서 다니기에 부적절한 옷차림, 수업하는 교실에도 무분별하게 들어가는 등 통제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어서 관리 차원에서 학교 투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한다. 우리도 여행 다닐 때 무의식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진 않은지, 자신의 행동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사실 소개하고 싶은 태국의 모습은 매우 많았다. 여기 담지 못한 치앙라이, 푸치파뿐만 아니라 치앙마이 근교의 몬썰, 빠이까지 많은 곳이 있다. 또한 태국의 남부는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모든 걸 소개하려면 아마 책 몇 권을 써내야 할 것 같다. 나의 행복했던 태국의 모습 중, 가장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순간을 펼쳐 내기위해 노력했는데 그 마음이 온전히 독자에게 전달되었으면 한다. 나의 소중한 순간들에 여러분들을 초대해보았는데 이 글을 읽는 동안 잠시나마 여유를 느끼고 편안했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